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버려진 양심’ 치우는 ‘환경파수꾼’ 홍양석씨 “세상서 가장 깨끗한 일 해요”

모두가 잠든 새벽. 지난 밤 사람들이 어질러 놓은 ‘난장판’을 정리하기 위해 그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버려진 ‘우리들의 양심’은 그의 손에 의해 거리에서 사라진다.

2년 전부터 광주시 동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양석(38·광주시 동구 총장로)씨. 담당 구역은 광주의 변화가 총장로 1가 일대다. 홍씨의 원래 근무시간은 새벽 5시30분~오후 5시까지. 모두 11시간 30분이다. 하지만 그의 실제 출근 시간은 새벽 3시. 제 시간에 출근했다간 시민들에게 “청소도 제대로 안 한다”고 욕을 얻어먹기 십상이다. 월요일 새벽처럼 쓰레기가 많은 날은 새벽 1시도 늦다.

홍씨가 처음부터 쓰레기 청소를 했던 것은 아니다. 그도 1997년 외환위기가 오기 전만 해도 간판가게의 어엿한 ‘사장님’이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가게 문을 닫게 됐고, 이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환경미화원을 택했다. 보수는 적어도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어서였다.



광주시 동구청 환경미화원 홍양석씨가 총장로 일대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 있다. 홍씨는 하루에 14시간 동안 쓰레기를 주워 100ℓ 들이 봉투 4개를 가득 채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환경미화원으로 출근한 첫날, 홍씨는 얼굴을 마스크로 가렸다. 자신이 쓰고 닦은 거리를 뒤돌아 볼 때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생겼다. 홍씨는 “내가 없으면 총장로는 사람들이 걷지도 못할 정도로 엉망이 될 것이라 자부심 속에 일한다”고 말했다.

처음엔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에게 원망도 많았다. “물론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상이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저런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인생처럼 세상이 거울처럼 깨끗할 수만은 없겠지요.”

하루 14시간 일하고, 한 달에 3일 쉬는 홍씨가 받는 월급은 180여만원. 홍씨는 “월급이 나보다도 적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만 벌어도 먹고 살기에는 충분해”라며 활짝 웃었다.

“정년인 만 58세가 될 때까지 총장로를 쓸 겁니다. 언젠가 내 빗자루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할 날이 올 때,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줄 겁니다.”

광주시 동구청에는 홍씨를 포함해 50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다. 이들은 오늘도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루에 2만ℓ 가까운 쓰레기를 줍는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경찰청 내년 7월 개청

정부 최종 확정...6과 3담당관제 운영

광주·전남지역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광주지방경찰청 신설안이 최종 확정됐다.

2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 신설에 관련된 경찰 인력재편 정부안이 최종 확정돼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7월 임시 개청할 예정인 광주경찰청은 청장(치안감) 아래 1차장(경무관), 6과 3 담당관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필요 인력은 경찰관 333

명, 일반직 8명, 기능직 35명 등 총 376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모두 4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내년 7월 상무지구 신청사로 옮겨가게 되는 서구 월산동 현 서부경찰서 청사를 임시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신설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도청이 이전한 무안의 남악신도시로 옮겨가면 현재 건축중인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의 전남경찰청 신청사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신설로 그동안 인구가 급증한 광주 광산경찰서와 광주 북부경찰서 분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광주경찰청 신설안 확정계획을 27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논의한 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인구가 140만명에 달하고 5개 경찰서 범죄발생건수도 지방경찰청이 들어 선 인천과 울산의 2배에 달하는데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울산의 4배, 인천의 1.2배를 웃돌아 지방경찰청 신설요구가 10여년 전부

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또한, 영남권은 5개의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반해 호남권은 2개에 불과해 지역간 차별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사업), 기업도시 건설 등 서남권 개발과 관련한 치안 수요 증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광주경찰청의 신설이 불가피했다.

한편, 행정부는 광주지방경찰청 신설과 함께 대전지방경찰청 신설도 최종 확정했다. 대전경찰청은 청·차장과 6과 3 담당관의 정원 202명 규모로 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정성 한아름...사랑 한아름

추석을 10일 앞둔 26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우편집중국 물류 창고에 추석 선물용 택배 박스가 수북이 쌓여 있다. 첨단지구 우편집중국은 추석을 앞두고 하루 평균 10만여개의 택배 물량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억대 공천헌금’ 민주당 前간부 구속

돈 건넨 영암군수 후보자도

5·3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군수 후보와 중앙당 고위당직자 사이에 공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지방선거에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민주당 중앙당 전 기획조정위원장 김모(44)씨와 공천 대가로 돈을 준 민주당 영암군수 출마 후보자 장모(59)씨를 구속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들이 공

천 헌금을 주고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4일 당시 민주당 군수를 희망하던 장씨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통장과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해 2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자신의 손윗동서 H씨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통장에서 2억5천만원을 인출한 뒤, 김씨 명의 계좌와 민주당 전 간부 S씨 명의 통장으로 5천만원~7천만원씩을 나눠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장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H씨와 장씨의 돈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S씨가 공천 헌금에 어느 정도 개입했

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당시 민주당 중앙당 간부였던 김씨에게 수억원대의 돈을 제공한 것은 자신의 군수 후보 추천을 위해 정치자금에 기부한 것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홍어, 관절염에 특효”

전남대 이태훈 교수팀 밝혀

특 쏘는 특유의 맛에 반해 많은 미식가가 찾는 홍어가 관절염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이태훈 교수(생화학)팀에 따르면 홍어 연골의 주요 성분인 콘드로이틴을 추출, 실험쥐에 투여한 결과 류머티즘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의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됐지만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어 연골을 대체할 수 있는데다 홍어의 관절염 치료와 예방 효과를 의학적으로 입증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이 교수팀은 홍어 연골 추출액인 콘드로이틴을 투여받고 있는 실험쥐(100마리)에 류머티즘 관



절염 유발인자를 투입, 관절염 증세를 확인한 결과 투여량에 따라 43마리에서 최대 57마리는 관절염에 걸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홍어 연골에는 콘드로이틴 성분이 90% 이상 함유돼 있으며 특히 콘드로이틴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정기자 viola@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만 길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가야할 길이 멀어도 두렵지 않고 함께이기에 가야할 길이 험해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친구처럼, 때로는 눈빛으로 통하는 부부처럼 금호아시아나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 위한 7대 실천과제

1.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2. 협력사 상생경영 3. 친환경 경영 4. 인재육성 5. 사회공헌 6. 투명경영 7. 아름다운 노사문화 8. 안전·건강경영

금호아시아나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 위한 7대 실천과제

1.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2. 협력사 상생경영 3. 친환경 경영 4. 인재육성 5. 사회공헌 6. 투명경영 7. 아름다운 노사문화 8. 안전·건강경영

일본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 콘도형 27만9천원 (10/9, 18, 26일 3박 4일)
▶ 호텔형 38만9천원 (10/11, 22일 3박 4일)

광주일보사 (062)220-0541

대한민국불가정보

TEL. 062-972-4008 FAX. 377-4002

한국최고 권위의 불가전문지